

KIA-롯데, 광주서 가을야구 운명 걸고 최후의 3연전

KIA 원정길 2승 4패 아쉬운 성적에 양현종·이명기 등 주축 부상 악재 오늘 헥터 선발...김세현·홍건희 1군 등록 투수 보강·박준표 전역 합류

'부상' 변수를 만난 KIA 타이거즈가 팀워크와 변화로 막판 스퍼트에 나선다.

10일 안방에서 한화 이글스와 경기를 치른 KIA는 11일부터 롯데 자이언츠와 올 시즌 마지막 3연전을 치른다. 아직 끝나지 않은 5강이 걸린 운명의 승부다.

5강 길목에서 KIA는 원정 6연전에서 2승 4패라는 아쉬운 성적을 안고 안방으로 복귀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가지고 돌아왔다.

에이스 양현종이 우측 옆구리 늑간 근육 부상으로 빠졌고, 외야수 이명기도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재합군이 됐다. 지난주 3번이나 공에 맞는 몸쪽 승부에 고전한 안치홍은 타격 컨디션이 푹 떨어지면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롯데와 원정 경기가 열린 9일에도 아찔한 장면이 두 차례 연출됐다.

3회말 무사 1-2루에서 임기영에 이어 KIA의 두 번째 투수로 나온 박경태가 채태인의 타구에 오른

쪽 허벅지를 맞았다. 박경태는 몸에 맞고 튀는 공을 잡아 1루로 송구해 아웃카운트를 잡은 뒤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5회에도 부상으로 잠시 경기가 중단됐다. 이번에는 김선빈의 발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렸다. 불넷으로 출루한 롯데 문규현이 2루 도루를 시도했고, 포수 김민식이 던진 공을 잡으려던 유격수 김선빈이 문규현의 스라이크에 발목 부위를 강타당했다.

결국 경기 도중 대수비 황윤호로 교체됐던 김선빈은 염좌 증세로 10일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여기에 KIA는 대구-인천-서울-부산을 돌면서 야간 경기와 낮 경기를 번갈아 치렀다. 6일에는 더블헤더를 한 뒤 9일 오후 2시 경기에 나서기도 했다. 강행군 속 긴장감 높은 경기들을 잇달아 치르면서 '체력'이라는 전력에도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다음'은 없는 최후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KIA는 후회 없는 마지막 질주를 해야 한다.

팀워크는 플러스 요소다. 김었던 원정길, 두 경기 연속 끝내기 패배라는 충격까지 안고 돌아왔지만 KIA 선수단은 10일 밝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 평소보다는 느긋하게 훈련을 시작한 선수들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다.

김기태 감독도 "선수들이 힘들 것인데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더라. 남은 경기 재미있게,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로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혼자 힘보다는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다"고 언급했다.

여전한 팀워크로 마지막을 향하는 KIA는 마운드에 변화도 했다.

10일 경기에 앞서 내야수 홍재호와 좌완 하준영을 말소하고 우완 김세현과 홍건희를 등록했다. 이날 경찰청에서 전역하고 광주로 온 박준표도 11일부터 바로 팀에 합류해 5강 싸움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헥터를 앞세워 마지막 3연전에 나서는 KIA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헥터

갈 길 바쁜데 2승 4패...이범호 "야구가 그래"

덕아웃 T 특목

▲92 멤버들 모였어요 = '92 투수'들이 다시 모였다. KIA는 10일 한화와의 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변동을 줬다. 내야수 홍재호, 좌완 하준영을 빼고 우완 김세현과 홍건희를 등록했다. 지난 8월 13일 엔트리에서 빠졌던 홍건희는 두 달 만에 1군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어진 역할 잘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홍건희는 "92멤버들 다시 모였다"며 웃음을 지었다. 이날 박준표까지 경찰청에서 전역해 야구장을 찾으면서 한층 힘을 보탬에 문경찬, 이민우 등 '92 동기'들이 마침내 한 자리에 모였다.

▲휴가 가야요 = 아직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박준표다. 경찰청에서 군 복무를 해왔던 박준표는 10일 국방의 의무를 끝내고 KIA

선수로 돌아왔다. 올 시즌 2.37의 평균자책점으로 12승을 거두면서 퓨처스리그 북부리그 2관왕에 오른 박준표는 11일 엔트리에 등록, 팀의 5강 싸움에 함께할 예정이다. 박준표는 "아직 제대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휴가 온 것 같다(웃음)"며 "기분은 좋다. 운동은 계속했다. 연습경기가 취소돼서 라이브 훈련으로 대신했는데 감이 좋았다. 빨리 돌아와서 하고 싶었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실감 나요 = 프로 선수의 꿈을 이뤘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나는 '야기 호랑이' 김기훈이다. 동성고 에이스 김기훈은 KIA 1차 지명을 받으며 주목을 받은 선수다. 그는 지난 5일 계약금 3억 5000만원, 연봉 2700만원에 입단 계약을 끝내면서 프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김기훈은 10일 불보이로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내년 시즌 함께 할 선배들에게도 인사를 한 김기훈은 "1학년 때 불보이로 세

번 왔었다. 그때는 나도 프로 무대에서 뛰고 싶었던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계약도 끝내고 경기장을 찾으니 기분이 남다르다. 설레기도 하고 KIA 선수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야구가 그래 =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야구다. 5강행 청신호를 켜고 원정길에 올랐던 KIA는 2승 4패의 아쉬운 성적을 가지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두 차례 끝내기 패배까지 당하는 등 험난했던 시간을 보내고 온 19년 차 이범호는 "감은 좋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이범호 옆을 지나가던 20년 차 정성훈은 "야구가 그래"라는 말로 마음 같지 않은 야구를 이야기했다. 이범호는 "밖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즐겁게 하려고 한다"며 "마음 편하게 연습을 하면 좋겠다"고 남은 경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가을잔치 16일 팡파르

한국시리즈는 다음달 4일부터

16일 KBO리그의 '가을 잔치'가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가 10일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포스트시즌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

포스트시즌의 첫 경기인 정규시즌 4위팀과 5위팀이 맞붙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16일 4위팀 구장에서 치러진다. 4위 팀이 승리를 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면 바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5위 팀이 16일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17일 와일드카드 2차전이 치러진다. 5위 팀은 2승을 해야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정규시즌 3위팀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승자가 겨루는 준플레이오프는 19일부터 3선승제로 진행된다. 1,2,5차전은 3위팀 3,4차전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팀의 홈구장에서 개최된다.

플레이오프는 오는 27일 시작되며, 3승을 먼저 챙기는 팀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한다. 1,2,5차전은 2위팀, 3,4차전은 준플레이오프 승리 팀 홈구장에서 열린다.

2018 KBO 정규시즌 우승팀인 두산 베어스와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맞붙는 대망의 한국시리즈는 4일 잠실 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4선승제로 진행되는 한국시리즈의 1,2,6,7차전은 두산 베어스의 홈구장인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3,4,5차전은 플레이오프 승리팀의 안방에서 펼쳐진다.

포스트시즌 경기가 우천 등으로 연기될 경우 다음 날로 순연되며,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사이에는 반드시 최소 하루의 이동일을 둔다. 경기가 밀리더라도 정해진 일정에 영향을 없을 경우 예정된 일정대로 경기가 진행된다.

포스트시즌 연장전은 15회까지 진행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경우 5위팀이 앞선 상황에서 4위팀이 15회말 공격 중 동점 또는 역전이 되는 경우 아웃카운트와 관계없이 경기가 끝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카바니 막고 고딘 뚫어라

축구대표팀 내일 서울서 우루과이와 평가전

오는 1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과 평가전을 벌이는 우루과이 대표팀이 결전을 이틀 앞두고 본격적인 담금질을 했다.

오스카 타바레스 감독이 지휘하는 우루과이 대표팀은 10일 오전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훈련했다. 훈련은 초반 15분만 공개했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전날 입국한 우루과이의 간판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파리 생제르맹)도 참가했다.

우루과이는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FC바르셀로나)가 셋째 아이 출산으로, 수비수 호세 히메네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부상 여파로 한국 원정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우루과이는 수아레스의 공백에도 카바니와 베테랑 수비수 디에고 고딘(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미드필더 로드리고 벳랑쿠르(유벤투스), 루카스 토레이라(아스날) 등 화려한 멤버를 자랑한다.

우루과이 선수들은 훈련장에 도착한 뒤 타바레스 감독의 훈련 지시에 이어 곧바로 가벼운 패스

훈련으로 몸을 풀었다. 전날 숙소에서 수영과 자전거 타기 등으로 여독을 풀 선수들의 한국 도착 후 첫 훈련이다.

카바니는 전날 도착해 피로가 쌓였음에도 밝은 표정으로 선수들과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원정 명단 22명 가운데 이날 오후 도착한 니콜라스 로데이로(시애틀 사운더스)를 제외한 21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곧이어 4~5명이 한 조를 이뤄 한 명의 슐터를 두고 공 쫓기 훈련으로 볼 감각을 끌어올렸다. 우루과이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15분 공개 훈련이 끝난 후 비공개로 남은 시간 전술 훈련을 이어갔다.

우루과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위로 한국(FIFA 랭킹 55위)보다 50계단이나 높은 남미의 강호다.

한국은 역대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상대 전적에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1-2 패배를 포함해 1무 6패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카바니를 앞세운 공격진은 남미 특유의 개인기를 앞세워 벤투호 수비진을 괴롭힐 것으로 전망된다.

고딘이 버티는 수비진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감바 오사카), 석현준(랭스) 등 벤투호 공격수들로서는 골문을 여는 게 과제다.

한편 타바레스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은 경기 하루 전인 11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평가전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성현

'세계 1위' 박성현 vs '상금 1위' 쥘타누간

오늘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맞대결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박성현과 2위 에리아 쥘타누간(태국)이 2주 연속 맞대결을 벌인다.

11일부터 인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오션코스(파72-6316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조 편성 결과 박성현과 쥘타누간은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함께 1라운드를 치른다.

박성현과 쥘타누간, 또 현재 세계 랭킹 8위 헨더슨은 대회 첫날인 11일 오전 10시 40분에 1번 홀을 출발한다.

박성현과 쥘타누간은 7일 역시 인천에서 열린

국가대표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 마지막 날 상금 매치플레이에서도 맞대결했다.

세계 랭킹 1위와 2위의 일대일 매치플레이에 팬들의 많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경기에서는 쥘타누간이 2홀 차 승리를 거뒀다.

박성현은 지난해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와 상금, 신인왕을 석권했고 쥘타누간은 올해 주요 부문 선두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번 시즌 상금 순위는 쥘타누간이 226만1377달러(약 25억7000만원)로 1위, 헨더슨(136만4956달러)과 박성현(126만1595달러)이 2, 3위로 그 뒤를 쫓고 있다. 대회 조직위가 시즌 상금 랭킹 1~3위가 같은 조에서 경기하는 '흥행 그룹'을 만든 셈이다.

/연합뉴스



쥘타누간